진돗개, 미국 경찰견 된다

명견화사업단·LA 한인회 MOU 체결

공식 첫 수출길 … 진돗개 세계화 계기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가 미국의 경찰견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돗개 명견화사업단이 최근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LA) 한인회와 진돗개 미국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A한인회의 이번 양해각서는 진돗개를 캘리포니아주 LA 북쪽 글렌데일시 경찰서의 경찰견으로 주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글렌데일시 경찰서는 진도군으로부터 기증받은 진돗개를 훈련시켜 경찰견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시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양해각서 수준이라 진돗개를 언제, 몇 마리나 보낼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 진돗개의 미국 경찰견 가능성이 높다.

진돗개가 미국 경찰견이 될 경우 이는 진돗개의 공식적인 첫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돗개는 지난 2005년 세계적인 애견 클럽인 영국 캔넬과 세계애견연맹에 등록돼 국제적인 명견 반열에 올랐지만 현재까지 수출 실적은 없었다.

이재일 진돗개 명견화 사업단장은 "진돗개를 세계적인 명견으로 육성하기 위해 LA를 전초기지로 선택했고 LA 한인회에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면서 "이번 사업이 진돗개 세계화를 이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진돗개 명견화 사업단은 2008년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연고 육성산업 사업단으로 선정돼 진돗개의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전문인력 양성,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 진돗개 활용도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수바쉬씨(왼쪽)와 클로이씨가 '5·18의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유럽에 5·18 전파"

5·18재단 정식 직원 된 클로이·수바쉬씨

"5·18은 아시아 인권운동의 본보기이자 아시아 민주주의의 나침반입니다"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 기념재단에서 만난 클로이 사이몬스(여·25·Chloe Simons·영국)씨와 수바쉬 아디까리(29·Subash Adhikari·네팔)씨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클로이씨와 수바쉬씨는 지난해 3월 5·18기념재단 국제인턴 자격으로 공부하다 올해부터 기념재단의 직원으로 발탁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5·18기념재단에서 맡은 업무는 5·18의 세계화다. 이들은 17일에 있을 광주아시아포럼 준비는 물론 오는 8월 열리는 광주아시아인권학교의 신입생 선발 등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영국에서 'Speak Network' 연합을 통해 인권운동을 했던 클로이씨는 2007년 서울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본 뒤 5·18에 관심을 갖게됐다.

클로이씨는 특히 한미 FTA 촛불집회 때 서울광장에서 모인 대규모의 군중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클로이씨는 "정치에 무관심한 영국인과 달리 한국인은 정치·사회분야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넘치는 민족으로 보였다"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공부하던 중 5·18의 가치에 대해 알게됐고, 전 세계에 5·18의 정신을 알려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네팔 출신의 인권운동가 수바쉬씨에게 5·18은 네팔 국민이 본받아야할 롤모델이다.

네팔 시민인권지원센터(INSEC)에서 활동해온 수바쉬씨는 "네팔은 2006년 민중운동 당시 14명이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권의식이 부족한 네팔 국민들도 광주의 5·18 진상규명 절차 등을 공부해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에 돌아가 인권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수바쉬씨는 "5·18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희망과 미래이며, 80년 당시와 그 후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 간의 협동과 단결이 네팔의 민중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 교류지원팀 김찬호(39) 팀장은 "이들이 광주에 와 5·18을 공부하고,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긴 5·18이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박선원 전 비서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또 독극물 막걸리

진도 술집 여주인 치료

지난 3월 진도군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독극물이 섞인 막걸리를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새벽 1시10분께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조모(여·64)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독극물이 든 막걸리를 마신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씨는 막걸리를 마신 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며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들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조씨는 곧바로 위세척을 받은 뒤 4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조씨가 마신 막걸리에 농약 성분이 섞인 점으로 미뤄 누군가 주점에 침입해 막걸리에 독극물을 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고령친화체험'

7일 오후 광주시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2층에 개관한 '광주고령친화체험관'에서 주민들이 온열마사지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행사 다채

9일 옛 도청앞 콘서트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7일 노무현재단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추모 콘서트(Power to the People 2010)' 광주 공연이 9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윤도현밴드, 강산에, 안치환과 자유, 우리나라, 피아, 노찾사, 문성근·명계남씨 등이 광주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의 시민들을 찾아간다.

또 한명숙 전 총리 등 각계 명사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밴드 '사람사는 세상'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와 노래 실력을 선보인다.

추모위원회는 또 17일 오전 10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추모 주간 선포식'을 갖고 서거 1주기인 23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모 기간 분향소 옆에서는 노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진전시회가 열리며, 22일 오후 7시 옛 도청앞 광장과 23일 오후 7시 대인시장 등에서는 다양한 추모문화제가 개최된다.

한편,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에서는 '노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도식' 및 고인의 박석·묘역 완공식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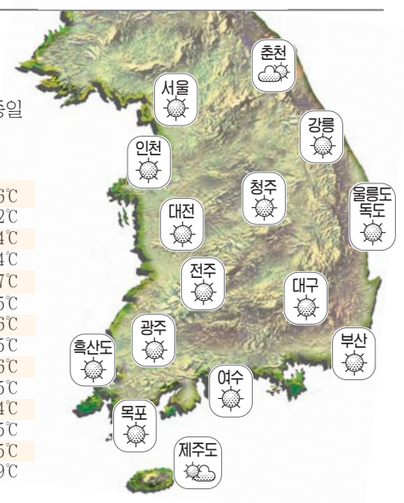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5시 35분 / 해짐 19시 23분 — 달뜸 02시 06분 / 달짐 13시 55분

부모님차 세차하기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루종일 맑겠다.



광 주	맑음	10/26℃
목 포	맑음	11/22℃
여 수	맑음	13/24℃
완 도	맑음	10/24℃
구 례	맑음	8/27℃
해 남	맑음	8/25℃
장 흥	맑음	8/26℃
고 흥	맑음	8/25℃
순 천	맑음	11/26℃
영 광	맑음	8/25℃
진 도	맑음	9/24℃
전 주	맑음	9/25℃
남 원	맑음	4/25℃
흑산도	맑음	11/1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먼바다	북서~북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주의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9:38 / 22:15	02:55 / 15:44
여수	05:14 / 17:37	11:31 / 23:38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날 씨						
최저/최고	13/25	14/20	11/22	8/23	8/24	9/25

'스폰서 검사' 의혹

박기준·한승철씨 곧 소환

진상규명위원회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중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다음주 초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인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들을 소환하는데 앞서 술접대 자리에 참석했던 평검사와 업주 등을 상대로 한 주변조사를 이번주에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이날 "현직 검사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주 초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 (검사장급) 소환이 늦어졌다"며 "사전에 술접대 자리에 동석했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와 관련 진술을 확보한 다음 소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전날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에서 의혹을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3)씨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현직 검사 5명과 접대업소 업주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7일 대검 청사에서 안창호 광주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과 함께 '검사 스폰서 의혹'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차동민 대검 차장검사와 광주·서울·대구·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정씨가 전·현직 검사 100여명에게 술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직후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토피 환자 절반 식품알레르기

우유·달걀 등 30% 차지

식품알레르기가 아토피 피부염의 중요 원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대 소아청소년과 노건웅 박사와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이상선 교수팀은 2008~2009년 사이에 서울알레르기클리닉을 찾은 303명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식품유발검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51%(154명)가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미국 알레르기 전문가 협의회의 공식 학술지(Allergy Asthma Proceeding) 최근호에 실렸다.

논문에서 연구팀은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식품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식품알레르기가 아토피피부염의 중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아직도 학계에서 식품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의 상관성에 대한 학설이 정설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박사는 "서양인에게 땅콩 등이 아토피 피부염의 중요 원인인 반면 육류는 아토피 피부염을 잘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우유와 달걀, 밀가루, 대두콩,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식품 알레르기의 약 3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권 '노인인권지킴이단' 본격 활동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는 7일 "노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2기 광주권 노인인권 지킴이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인권'을 노인들 스스로 지키기 위해 결성됐으며, 지난해 광주권과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에서 모두 79명이 '제1기 지킴이단'으로 선정돼 각종 인권상담과 급식봉사 등의 활동을 벌였다.

지난 6일 출범한 '2기 지킴이단'은 지난달 8~21일 공개모집을 통해 광주권역에서 총 23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9월까지 매주 1회에 걸쳐 노인 집중취업 직종에 대한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벌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과잉 형벌 논란

향군법 조항 '합헌'

경찰관 등에 임용돼 예비군훈련이 보류됐다가 그 사유가 해소됐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3 제2항 등이 과잉형벌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구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단순히 인력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병력형성의 무를 게을리하면 발생할지도 모를 향토예비군 조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드라이버 하나로 교회·상가 털어

쌍나팔

○…2년 남짓 드라이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교회와 상가 등을 털어온 30대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인해 '덜미'

○…광주광산경찰은 7일 심야시간대 광주지역 교회와 상가 등지를 털어온 김모(39)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3시께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모 교회에서 노트북과 TV 등을 들고 나오는 등 2007년 10월부터 모두 24차례에 걸쳐 2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교회와 상가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현장의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차량을 토대로 관내 1215대의 차적조회 등을 통해 김씨를 검거.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